

적중 99%
(Final 비급)

적중 99% (Final 비급)

본 저작권은 김쌤 언어연구소에 있습니다. 학습 용도 이외에 무단 도용 or 배포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겠습니다. 제보자에게는 민사 보상금 전액을 드립니다.

<‘적중 99%’ 인트로>

1. “2019년에 부각되는” & “올해 출제가 유력한” 개념들과 시사이슈(~2019/12/31까지의 전범위 반영)를 모조리 담았다.
2. 총 1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 page 분량의 매우 컴팩트한 자료로 하루면 공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너가 어떤 상태에 있던, 누구에게 배워왔건, 이 자료로 마무리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라. 비급자료를 본 자와 안본 자의 차이가 극명할 것이야.
3. ‘적중 99%’ 자료 하나만 잘 숙지하고 들어가도, 올해 면접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올해 면접장에 반드시 들고 들어가야 할 모든 개념과 시사이슈**를 녹아내었다.
4. 보여주기식의 양 늘리기는 지양하였다. 쓸데없는 내용은 없으며, 올해 교대정시면접을 응시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만을 정리하였다. 지금 시기에 너희들이 해야 할 건, 양을 늘리는 공부 아니야. 쌤이 준 프린트에 본인의 아이디어 몇 가지만 더 끄적이고, 덧붙이는 식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라. 이 시기의 공부는, **내용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5. 다음 자료인 ‘적중 1%’는 출제가능성이 있는 잔가지들을 다루는 자료다. 꼭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시간이 남는 수험생들에게만 권장한다.

<‘적중 99%’ 활용법>

‘적중 99%’에서 제시하는 **키워드(Keyword)**를 활용하여 **두괄식**으로 답변해라. 면접에서 답변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꼭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하여 대답**하는 것이다. “면접관들은 긴 답변을 좋아할 것이다”는 순전히 “니생각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두괄식의 답변을 한 이후에, 부연설명-예시를 어떻게 들 것이며,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제안-해결책, 기대효과 제시 등은 각 면접문제에 맞추어 대처하면 된다.

그리고 쌤이 누누이 말했듯이, 너네 말하기 실력은 형편이 없다. 그러나 웃긴 것이, 너네의 경쟁자 실력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래도, 쌤한테 배우거나 쌤 자료를 보는 너희들이 경쟁자들보다는 훨씬 덜 못하니 너네가 붙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라.

<Issue 1. 확대되는 인권 vs 축소되는 교권>

중요도 : ★★★★★

A. 요약

✓ 교권 : 교사의 권리. 현대사회에 들어 인간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 최근 관련 법령 개정 -> 교권이 회복되어 가는 추세

B. 관련개념

✓ 인권 :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

✓ 기본권 : 헌법에 명시되어있는(성문화된) 인권.

✓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6대 권리) :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밀줄 3개는 반드시 기억)

✓ 기본권의 제한(2가지) :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 or 공익적 관점에서 제한의 필요성이 생길 때(공공질서 유지 등)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대답할 때 있어 반드시 언급 해야 할, 교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①학생 못지않게 교사도 기본권이 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②교사 고유의 권리인 교권이 침해된다 보면,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진다(공공질서를 해친다).

C.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2019.10.17. 시행)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라는 점에 주의. 또한, **올해 10월 시행이기에 출제가능성이 다분한 주제**이니 기억하도록.

<Issue 2. 학교체벌에 대한 찬반>

중요도 : ★★★★★☆

A. 요약

최근 법 개정이 있을 만큼,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Issue 8. 정시 확대론 VS 학종 개선론>

중요도 : ★★★★★

A. 관련 이슈

-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쌍둥이 딸의 학교성적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
- 2018년~19년 드라마 'SKY캐슬' 방영으로 인해 수시, 학종의 민낯에 대한 관심도 증대
- 2019년 여름,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다

B. 정시확대 VS 학종 개선

✓ 現 학종(학생부종합전형)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한다. 다만, "학종을 축소·폐지(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정시 확대파)" vs "학종을 축소·폐지하지 말고, 학종의 몇 문제점들을 개선해가면서 결국은 학종을 유지해가자는 입장(학종 개선파)"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 정시 확대파의 주장

- 학종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전형이며, 비리가 일어날 여지가 다분하다. 반면, 수능은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시험인만큼, 대입 전형 中 수능 전형이 가장 공정한 전형이다.
- 학종 전형은 소수 몇 명에게만 허락되는 대입전형인 반면, 수능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열린 대입전형이라는 점을 강조

✓ 학종 개선파의 주장

- 학종 개선론자는 정시 확대가 과거 학력고사 시대의 획일적 입시의 악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정시 확대는, 다양한 교육 활동 체험에 대한 동기를 약화 시킬 것이며, 단순한 시험 점수 하나만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 학종이 고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인만큼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학종을 폐지하면, 아이들은 3년간의 학교 공부에 소홀히 하다가, 수능 볼 때쯤 되어 수능 공부에만 매진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Issue 9. 고교 무상교육>

중요도 : ★★★★★☆

A. 요약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9년 10월 31일). 올해 통과된 법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교육 사안이기도, 올해 시험의 시사 이슈로 나올 가능성이 다분함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의 과정까지만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는 단계적 시행(고3 학생들에게만 혜택->고2·3 학생들에게도 혜택->고1·2·3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모든 학교·모든 학년의 고등학생 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고교 무상교육은 압도적인 찬성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된 법안이라 찬반 논쟁이 크게 의미가 없다. 고교 무상교육이 통과되게 된 찬성 측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자면 3가지인데, ①OECD 국가 36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②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상징성을 띤다는 점 ③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가계의 가치분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 모든 복지 문제가 그러하듯, 비용(세금)에 대한 우려와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그 중에서도 ㉠)가 제기되었다.

B.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수립

✓복지(welfare) = 행복한 삶

✓복지 정책이란, 국민의 삶을 좀더 행복하게 해주는 정책이라고 간단명료하게 기억해두자

-> 복지는 당연히, 하면 좋다!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지를 해주는 것만큼 이상적인 것이 있겠나.

-> 복지는 좋은 것인데, 실시할 때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항상 비용(세금)에 대한 우려와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게 되어있다.

-> 비용에 대한 우려는 쉽게 와닿을 것이고,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무엇이나. ㉠퍼주기만 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태해져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쉬면서 복지 혜택만 누리려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노력의 동기를 약화 시킨다는 것이다. ㉡복지의 혜택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는 비효율성(ex.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이 진정